

국가안보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부사관 후보생의 의사표현 능력 향상 방안 연구

송준화* · 천명희*

요 약

이 연구에서는 현재 부사관 후보생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사관 전형에 필요한 언어논리력의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self directed learning)의 과정을 소개하며, 부사관의 군 조직내 중요성을 바탕으로 후보생들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말하기와 내용 구성에 관련된 면접, 프레젠테이션, 토론의 3가지 커리큘럼을 제안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흔히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스캐폴딩(scaffolding)방식을 사용하였으며, 3가지 수업모형의 적용 결과 의사표현 능력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였다.

Improving the ability of oral communication skills for NCO candidates

jun-hwa Song* · myeong hy cheoni*

ABSTRACT

In this study, diagnosis of the problem of self-directed learn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language, reasoning needed for NCOs typical for students currently enrolled as a cadet NCOs and suggested some lessons to improve this model. Proposed presentation, the three curriculum of presentation and discussion related to the configuration interview, self-directed learning was to be his students. In one of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s experienced in a self-paced learning learner was used in this process is often the scaffolding system, is shown that can lead to improved ability to apply the result of expression of the three class model.

Key words : oral communication skill, Interview, presentation, debate.

접수일 (2014년 10월6일), 수정일(1차:2014년 10월20일)
계제확정일(2014년10월28일)

* 경북전문대학교

1. 서론

부사관은 군 조직에서 장교와 사병 간 중간 간부로서, 분·소대와 같은 작은 규모의 집단을 지휘하거나, 전투 기본교육, 보급, 정비, 행정, 부대관리 등의 기술과 숙련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전문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 군인을 일컫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9월 13일에 <국방개혁 2020 (Military Reform Plan 2020)>에서 미래 선진정에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향후 부사관의 수를 2020년까지 15만 명가량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방부가 2014년 3월 6일에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30>에서도 상비 병력을 현재 63만3000명에서 향후 11만여 명을 추가로 감축해 2022년까지 52만 2000명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에 따라 간부는 장교 7만, 부사관 15만2000명 등 22만2000명을 유지하고 사병은 30만 명을 유지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매년 최소 1만여 명 정도의 전문 부사관을 양성하며,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 계획과 부사관학군단(RNTC)의 창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사관을 위시한 여군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져 2010년까지 여군의 구성 비율을 장교 4.4%, 부사관 2.9%에서 2015년까지 장교 5.7%, 부사관 4.1%로 확대하여야 하며,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 집약형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의 이러한 정부의 군조직 개편 계획에서 무엇보다 전문 부사관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군의 현실에서 각급 부대의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의 역할과 사병의 관리가 주된 임무가 되는 부사관에게 전문적 자질과 함께 올바른 의사소통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현재 부사관 후보생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사관 전형에 필요한 언어논리력의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을 소개하고, 부사관의 군 조직내 중요성을 바탕으로 후보생들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배경

이 연구의 대상은 현재 부사관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경북전문대학교¹⁾ 전문사관양성과 2학년 재학생이다.

부사관 전형에서 학생들은 필기전형에 우선 응시하여야 한다. 육군의 경우 지적능력평가, 상황판단평가, 직무성격검사로, 해군은 'KIDA간부선발도구', 공군은 인지능력평가, 상황성격평가, 직무성격평가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육군의 '지적능력평가' 중 '언어능력', 해군의 'KIDA간부선발도구' 중 '언어논리', 공군의 '인지능력평가' 속 '언어논리'가 각각 본 연구와 관련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과거에 비해 점차 평가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학습해야 한다. 또한 학습량이 방대하고 또한 암기를 필요로 하는 여러 부분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학과의 언어논리력 관련 교과과정은 <국어기초>, <국어문법>, <의사표현>, <작문작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대한 학습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그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언어논리력 검사는 언어로 제시된 자료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서, 세부적으로 어휘력 검사와 언어추리 및 독해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에 사용되는 지문의 경우 군의 정신전력 교재, 신문기사, 문학 작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글들의 활용되고 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력 검사는 문맥에 적합한 어휘를 찾아내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고유어와 한자어, 관용어 등 다양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며, 다의어의 경우 문장 내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추론하고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정확한 표현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문항에서는 동의어와 반의어 관계, 어휘의미 파악, 문장 완성 등이 반영되어 있다. 다음으로 언어추리 검사와 독해 검사는 글

1)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재학 중인 경북전문대학교는 매년 부사관 전형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12일에 2015년 8월부터 운영되는 전문대학 육군 부사관 학군단 신설 시범운영대학에 선발되었다.

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논리적 구조를 올바르게 분석하거나 배열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된 지문을 읽고 사실적 관계를 확인하고, 글의 배열 순서 및 문맥을 파악하여 글의 흐름의 방향을 알며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그러나 언어 논리력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어휘의 경우 현재 일상 언어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가 아닌 경우가 많다. 특히 고유어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매우 생소한 경우가 있어 특별한 암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상학생들의 언어논리력과 관련된 학습은 1학년 과정에서 개설된 <국어기초>와 <국어문법>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입학 시 언어영역에 관련된 진단평가의 결과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우선 대학 수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휘의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업진행에서 본연의 수업내용 이외에 여러 용어들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되기 힘들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방법을 이용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학습 의욕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어능력인증자격과 연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현재 한국어능력인증과 관련된 공인 자격은 <KBS 한국어 능력시험>과 <국어능력인증시험(ToKL)>이 있다. <KBS한국어 능력시험>은 KBS한국어진흥원에서 주관하며 국가공인자격을 공인받은 대표적인 한국어능력인증시험이다. 21세기 국민의 모국어 사용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외래어의 범람과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이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어로 자기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험이다. <국어능력인증시험(ToKL)>은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며 역시 국가공인자격을 공인받은 시험이다. 국어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언어사고력을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바른 국어학습 방향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며, <KBS한국어 능력시험>과 달리 쓰기 영역의 평가를 포함한다.

이들 인증시험들은 그 내용 면에서 부사관 전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논리력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언어논리력과 <국어능력인증시험(ToKL)>의 평가 영역을 표로 나타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언어논리력 평가영역²⁾

평가영역	평가내용
어휘력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동음이의어, 상하위어, 단위어, 호칭어, 접속어, 관용어(속담, 사자성어)
어문규정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로마자표기법
언어추리	언어유추 단어의 관계와 속성 중의적 표현 내포, 상징
논리와 추론	추론 논리적 오류 논리구조와 문단 배열
독해	글의 진술방식 글의 주제와 독해

<표 2> ToKL 평가 영역³⁾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언어 기초 영역	수행기반능력(어휘) 언어규범능력(어법, 어문 규정)
언어 기능 영역	청해능력(듣기) 독해능력(읽기) 작문능력(쓰기)
사고력 영역	사실적 이해 추론 비판 창의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한국어능력 시험의 내용과 인지능력평가의 각 요소는 매우 유사함을 드러낸다. 또한 문항 구성과 내용에서도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이에 수업에 있어 좀 더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한국어인증 관련 교재를 채택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국어능력인증시험의 각 영역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self directed learning)을 시도하였다.

2) 육군·해군·공군 각 홈페이지 필기평가 예문 참조.
3) 국어능력인증시험 홈페이지 (http://www.tokl.or.kr/asp/information/sub01_03.asp) 평가영역 및 문항구성 참조.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가 학습의 참여 여부에 서부터 목표설정 및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계획의 수립,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학습계획에 따른 학습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결정하고 조절과 통제를 행하게 되는 학습형태이다.⁴⁾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학습 만족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높을수록 학습 만족도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하위요인 중 기초학습기술과 문제 해결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학습 만족도는 높아진다.⁵⁾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언어논리력과 관련된 학습은 다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어휘항목의 경우 스스로 각 어휘들을 숙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인지능력평가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문법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어문규정의 오류나 비문법적 문장의 사용 등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음소 단위에서 시작되어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문장, 문단으로 이어지는 언어의 체계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목표제시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 3등급 이상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었다. 그 결과 특별시험에서 과반수의 학생들이 3급의 등급을 받아 부사관 전형 시 유용한 가산점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3. 스캐폴딩 방법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의사표현 능력 향상 수업 모형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이 부사관 전형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에 대한 학습을 선행한 부사관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의사표현 능력의 중요성을 주시시키고 이의 향상을 위한 실제 수업모형의 적용을 실험하고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부사관 전형의 직무적성검사에서 실제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말하기 영역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평가항목의 특성상 말하기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전형 과정에서 면접을 통해 말하기 부분 및 인성 등을 확인하지만 유형화된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군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말하기 과정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연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부사관으로 임관되어 현재 복무를 하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전문적 업무 능력 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인간관계 유지의 필수 조건 중에 의사표현의 적절성을 들 수 있다. 자신의 메시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불필요한 의사표현을 자제하여 대인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군 조직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의무복무로 인해 보직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새로 충원된 조직구성원들을 계속시키고, 강력한 통합과 공동의식을 발휘토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⁶⁾

말하기(speech, communication)는 아이디어 전달을 목적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이용한 시청각적 기호의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함은 물론, 남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언어능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언어능력(언어수행)이 존재함을 알게 해 주는데 이 능력이 바로 ‘화법’ 또는 ‘화술’로 불려지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소통 능력이다. 의사소통의 정의는 여러 논의에서 나타나는데, Alfred G.Smith는

4)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2000. 자기주도적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자신의 학습 필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있어야 한다.

② 학습의 참여 여부와 참여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해야 한다.

③ 학습목표의 선정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설정이 아니라 학습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정의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선정해야 한다.

④ 학습 내용 및 방법의 선정에 있어 어떠한 내용의 학습 프로그램이 적합할 것이며 그 방법은 어떠한지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⑤ 성취 결과의 평가에서 외부의 객관적 평가에 앞서 학습자 스스로의 주관적인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5) 김정화, ‘학습공동체 참여 대학생의 집단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20-12』, 2013. p331-332.

6) 김친환·진종순, ‘군 조직 내 의사소통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7-2』, 2010. p 207-208.

Communication and Culture(1966)에서 ‘의사소통은 인간이 서로를 조정하고 상호 이해를 구하는 총체적 과정’으로 언급하였고 Raymond S. Ross는 Speech Communication(1986)를 통해 ‘의사소통은 반응 그 자체만은 아니며 자극과 반응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 그 자체’로, J. Regis O’Connor는 ‘의사소통이란 상호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의견(메시지)을 주고받는 과정?’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말하기와 내용 구성에 관련된 면접, 프레젠테이션, 토론의 3가지 커리큘럼을 수업모형으로 제안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흔히 학습자가 자기주도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스캐폴딩(scaffolding)방식을 사용하였다. 스캐폴딩은 학습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학습자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초보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하고 과제를 수행할 때까지 전문가가 제공하는 도움이다(Wood, Bruner & Ross, 1976). 처음에는 교수자나 동료학습자와 같은 타인의 안내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을 스캐폴딩 하면서 학습이나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⁸⁾.

면접은 1:1화법(one-to-one communication)의 한 종류로 개별 의사표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시도하였다. 프레젠테이션은 팀별과제(team work)이면서 공중화법(public communication)에 속한다. 특히 내용구성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토론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이 세가지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 경험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을 포괄하는 것이다.

먼저 연구에 앞서 학습자 사전 진단 및 요구조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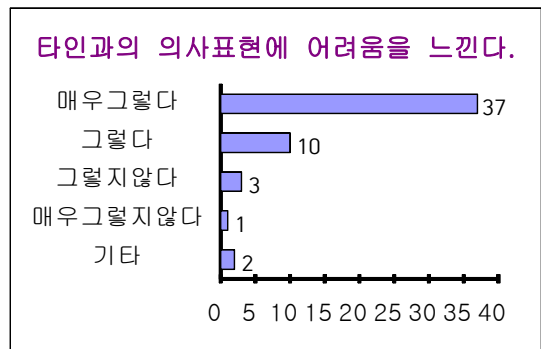
7) J. Regis O’Connor, 『Speech & Theatre Department』, 1981. 여기에서는 의사소통의 종류에 대해서 one-to-one communication, group communication, public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8) 김윤영·정현미, ‘자기주도학습 촉진을 위한 교수자 스캐폴딩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과학연구 43-1』, 2012.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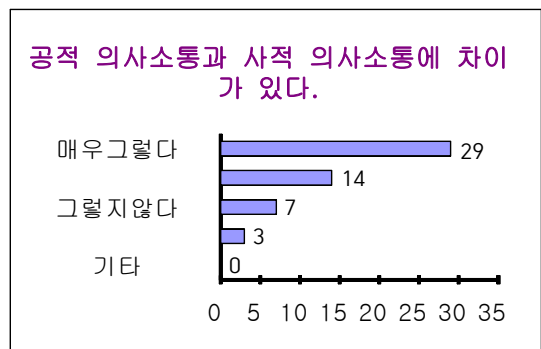
통해 실제 학생들이 의사표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문 대상은 부사관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2학년 <의사표현>과목 수강생 53명이다. 이들은 1년간 언어논리와 관련한 수업을 청강하였으며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각각 졸업하였으나 선행된 필자의 과목을 청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표현력의 차이는 거의 없는 학생들이다. 설문은 다음 5가지 문항에 대해 응답하였다.

- ① 타인과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 ② 공적 의사소통과 사적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가?
- ③ 자신의 준언어적 의사표현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가?
- ④ 의사표현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 ⑤ 자신의 의사표현의 문제점을 간단히 적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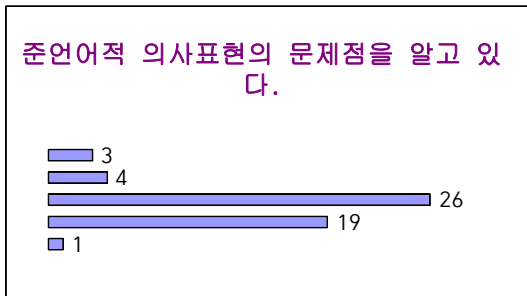
<그래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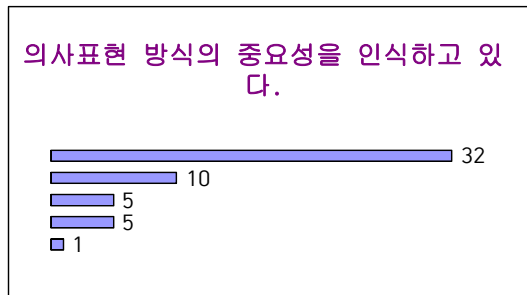
<그래프 2>



<그래프 3>



<그래프 4>



위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앞의 설문내용 ①-④의 조사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학생들은 대부분 의사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공식적 의사표현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표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준언어적·비언어적 요소도 또한 의사표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⁹⁾ 준언어적 요소에는 음량, 억양, 강약, 속도, 휴지, 음폭, 음질, 발음 등이 있으며, 비언어적 요소에는 표정, 시선, 자세(몸짓, 제스처), 공간요소(거리, 장소 등) 등이 있다. 이들은 언어적 요소를 보충하며 때로는 언어를 대신하기도 하는 의사표현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감정이 배제된 의사표현은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논리적 표현에만 얽매어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주로

9) R.Birdwhistell의 Introduction to Kinesics: An Annotation System for Analysis of Body Motion and Gesture(1952)에서는 의사표현에서 음성언어는 35%, 비언어적 신호는 65%로 비언어적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밝히고 있다.

⑤번 항목에 대해서는 ‘자신감의 부족’이나 ‘공식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을 주로 언급하였다.

각 수업 모형의 세부적인 내용과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면접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함께 부사관 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형시 군에 지원하게 된 동기나 여러 군관련 문제를 질문하지만 최근에는 사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시사적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본교 학생들의 경우 CS수업¹⁰⁾을 통해 기본적인 면접 시 태도와 몸가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시사 문제를 접했을 경우 곤혹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면접은 말하기의 태도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말하기에 있어 명확한 구성은 이해를 촉진하고 청자의 관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면접 말하기의 구성은 핵심내용(corestatement)과 주요내용(mainpoint), 보조내용(subpoint)으로 구분되며 이를 바탕으로 빠른 화제식 개요(topic outline)의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개요의 각 단위에는 하나의 내용만을 진술하며, 중복을 피하고, 보조내용의 나열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게끔 사전에 충분히 인식시켰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방식으로 진행된 본 수업모형에서 면접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① 전체 수강 대상 학생들은 면접관과 면접자가 된다.
- ② 면접 장소는 강의실이며 면접자는 연단에 한 줄로 서며 3-5m 떨어진 곳에 면접관이 위치한다.
- ③ 4명이 한조가 되어 면접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사전에 자신이 면접할 대상자의 지원처를 숙지하고 3-4개 가량의 질문을 준비한다.

10) CS수업은 경북전문대학교 생애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CELL 기반 블록형 생애교육시스템’의 한 과정이다. CELL은 △CS(Customer Satisfaction : 고객만족 인성교육) △EC(Engagement Coaching : 취업중심 진로지도) △LT(Link Teaching : 기초학습능력 향상) △LA(Level Approach : 전공기초능력 강화)의 앞글자로, 학생들의 인성과 기초학습능력 향상, 수준별 전공기초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CS는 2007년 1학년 1학기부터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 ④ 질문 내용은 부사관 지원과 관련된 것과 여타 사회 시사적 문제, 심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들로 구성된다.
- ⑤ 4명의 면접자는 4명의 면접관으로부터 실제 면접 상황과 동일하게 5분 가량의 교차 질문을 받고 적절히 대답한다.
- ⑥ 여타 학생들은 청중으로서 면접과정에 대해 간접 경험하며 면접의 평가문을 작성한다.

교수는 실제 면접에서 내용 구성과 비언어적 요소 등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은 비평적을 작성하였다. 비평적에는 등급척(scale), 대조척(check list), 측면도(profile chart) 등이 있는데 이번 수업모형에서는 필자가 직접 작성한 대조척을 사용하였다. 대조척의 항목은 일반적으로 공중화법의 과정에서 문제 시되는 비언어적·준언어적 요소 및 메시지 전달 내용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대조척을 통해 면접자는 자신의 의사표현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고자 시도하였다.

<표 3> 대조척(check list)

면접관	면접자	실시일자
대조척(check list)		
___ 1) 청자가 즐거워하였다. ___ 2) 태도가 좋았다. ___ 3) 태도가 불쾌했다. ___ 4) 무성의해 보였다. ___ 5) 알아듣기 어려웠다. ___ 6) 음성이 단조롭다. ___ 7) 어미 처리가 부적절하다. ___ 8) 말을 짧고 몰아쳤다. ___ 9) 명료한 발음이 아니다. ___ 10) 빠르게 말했다. ___ 11) 틀린 발음이 있다. ___ 12) 표현에 다양성이 있다. ___ 13) 불확실한 몸가짐이다. ___ 14) 시선배분이 좋다. ___ 15) 침착하고 자신이 있다. ___ 18) 선 자세가 빈약하다. ___ 19)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였다. ___ 20) 창의적 생각이 드러났다.		
전체평가 및 개선점		A B C D E
학과 :	학번:	이름:

B.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은 화법이나 의사소통 차원을 넘어서 지식,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업무 수행 능력 혹은 개인적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적인 소양이다.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 혹은 동의를 얻고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말하기의 한 방법으로 원래는 광고 대행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설명하는 행위에서 기획, 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설명하는 일 따위를 가리키는 말에서 확대된 것이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다.

수업에서는 수강생을 8명가량으로 조를 편성한 후 각 조별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살펴 직접 발표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후 약 3주의 기간 동안 팀별로 주제로 정한 사회문제들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기존 사회에서 제시된 해결안을 보이며 동시에 조원들이 창의적 해결안을 마련한다. 교수는 피드백의 역할만을 담당하며 발표 시 사전 질의를 맡은 팀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팀별로 '3P(청자-people, 목적-purpose, 장소-Place)분석하기 - 정보수집하기 - 시나리오 만들기- 시각자료 만들기 - 시연하기'의 순서로 진행된 수업에서 특히 내용 구성과 슬라이드의 효과적 작성이 매우 강조되었고, 각 팀에서 선정된 발표자의 발표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팀별로 발표 툴(tool)은 파워포인트(powerpoint)나 프레지(prezi)를 사용하도록 유도했으며, 모든 슬라이드 자료의 제작에 엄격히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배제하고, 텍스트(text)와 시각자료(image) 등도 직접 제작할 수 있게 하였다. 정확히 15분의 발표시간을 엄수하게 하였으며, 5분의 질의 응답시간을 부여하여 이를 위반했을 시 감점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설명의 일반적 원리인 정의, 기술, 묘사, 분석, 분류와 구분, 비교와 대조, 예시와 인용 등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며 프레젠테이션이 어떠한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 말할이와 들을이가 함께 합의하고 결정하여 들을이로 하여금

실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데 참된 목적이 있으며, 집단의 결정 사항이 직접 실행되는 상호 의사 수행 및 결정 과정의 중요한 말하기의 형식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발표팀의 발표가 끝난 후 각 개인은 6개 조의 프레젠테이션 평가지를 작성하였다.

<표 4> 프레젠테이션 평가지

PPT 주제	발표조	질문조
1. 프리젠테이션 결론		
2. 시나리오		
1) 문제점이 제대로 파악되었는가?	A B C D E	
2) 논리적 구성이었는가?	A B C D E	
3)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안이 적절한가?	A B C D E	
4) 청자의 이해를 도왔는가?	A B C D E	
5)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켰는가?	A B C D E	
3. 상호작용		
1) 적절하게 대응했는가?	A B C D E	
2) 질의 응답의 상호작용이 활발했는가?	A B C D E	
3) 목소리 크기는 적장했는가?	A B C D E	
4) 시선은 충분했는가?	A B C D E	
프리젠테이션 내용	질문/의견/반론	
4. 전체평가 및 개선점	A B C D E	
학과 :	학년:	이름:

C. 토론

토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서 찬성자와 반대자가 각기 논리적인 근거를 발표하고 상대방의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하는 구두표현의 한 형태

이다. 토론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 유형이 널리 알려져 있다.

아카데미(CEDA) 방식 : 미국 대학토론포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토론방식으로 찬성측과 반대측은 2인으로 구성되어, 각각 세 번의 발언기회를 얻는다. 입론, 반박, 교차조사를 한 번씩 하는 방식.

링컨·더글러스 토론(Lincoln·Douglas debate) 방식 : 미국의 노예 제도에 관한 토론에 기원을 둔 것으로 양 팀에서 대표자 한 명씩 1:1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론, 교차조사, 반박의 과정으로 부정측은 입론에서 1분, 긍정측은 반박에서 1분의 시간을 더 사용한다.

의회 토론(parliamentary debate) 방식 : 한 팀에 보통 2명씩 참여하며 토론 중에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교차조사를 위한 시간이 따로 없다. 입론과 반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에 상대팀의 발언 과정에서 보충질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을 할 수 있다.

칼 포퍼 토론(Karl Popper debate) 방식 : 3인이 한 팀을 구성 한 번의 입론, 두 번의 반론을 하되 교차조사가 입론과 반론 과정에서 지속되는 방식. 상대팀의 잘못된 점을 입증하면 토론에서 승리하는 방식과 달리 칼 포퍼 방식은 자기 팀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¹¹⁾

이번의 수업모형에서는 위의 여러 방식 중 링컨·더글러스 토론 방식에 기반 한 패널토론(panel discussion)과 난상토론(free-for-all)을 혼합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53여명의 학생들은 2팀으로 나누어 스스로 주제를 찾는 토의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찬반의 표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다. 팀에서 각각 주제를 직접 선정하게 되는데 여러 토론의 주제들 중 찬성과 반대 양측이 어느 정도 비슷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이 과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시의적절하고 대학생으로서 논의가 가능한 주제

11) 강태완 외, 『토론의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전재강 외, 신세대를 위한 발표와 토론, 박이정, 2011. p95-96. 재인용.

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인원 차이가 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사형제도, 안락사, 군가산점, 체벌, 인간복제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주제를 도출하였는데 스스로 정한 주제이기 때문에 참여의욕이 매우 강하였다.

이후 4주 간 각 찬성과 반대팀은 자료조사와 논거를 정리하였고, 이후 논거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어느 순간에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구상하게 하였다. 실제 토론 시간은 주제별로 약 100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끊임없는 반론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토론의 평가는 승부 결과와 개별 참여도에 따라 철저히 상대평가를 실시함을 공지하여 학생들의 의욕을 높이고자 하였다. 토론이 끝난 후 평가는 요지서와 실제 토론의 점수를 합산하고 청중의 심사도 점수에 반영하였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토론은 편성된 두 개의 조원들 간에 이루어진다.
- ② 토론 주제의 선정은 두 개의 조의 구성원들이 충분히 동의하고 그 찬반의 수가 비슷할 때 가능하다. 토론에 임하는 조에서 소수의 반대 의견자(상대방의 의견에 찬동)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그 소수의 의견자들은 임시로 조를 바꾼다.
- ③ 토론 주제는 명백히 찬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사회 전반에 논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자료 수집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 ④ 토론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패널간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후반부는 조원 전체가 참여한다.
- ⑤ 토론의 사회는 교수가 맡는다.
- ⑥ 토론에 임하는 조에서는 각각 2명의 패널을 선정한다. 패널은 조원들이 수집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여 실제 토론에 임한다. 실제 토론에서 패널은 각기 공격과 방어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⑦ 패널이 아닌 조원들은 토론 자료 수집의 역할과

실제 토론에서 후반부에 벌어지는 토론자로 참가할 수 있다.

- ⑧ 토론에 임하지 않는 나머지 학생들은 토론의 평가자로 참여한다.
- ⑨ 토론의 순서는 논제제시 → 기초발언 → 용어와 어휘에 대한 정의 → 현상 분석 → 근거제시(실제토론 - 쟁점의 순서에 의거) → 정리 → 토론 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찬성과 반대 각 팀에서는 토론에 임할 때까지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토론 주제 선정의 이유(배경설명) - 왜 이러한 내용을 토론의 주제로 정했는가?
- ② 중심 의견 - 왜 우리는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 섰는가?
- ③ 용어 정리 - 용어의 일치는 토론의 전체가 된다. 토론자 쌍방은 그 토론 내용에 등장하는 현상과 사건들에 대한 역사와 현 사회에의 적용방식, 해석 등을 나름대로 체계화 시켜야 한다. 용어의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 토론자는 토론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 ④ 중심 의견의 근거 - 실제 토론 속에서 제시할 논거들로서 충분히 검증되고 신뢰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한다. 실제 토론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토론자는 이 근거들을 일정한 순서로 재배열하여 효과적으로 토론에 임하게 된다.
- ⑤ 예상되는 반대 의견 - 상대방의 논거들을 예상함으로써 실제 토론에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고 원활하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
- ⑥ 수집한 자료 제시 - 자기의 논의 전개와 논박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여러 매체를 통해 수집한다. 실제 토론에서 논거를 뒷받침할 증거자료의 제시는 청중에게 신뢰성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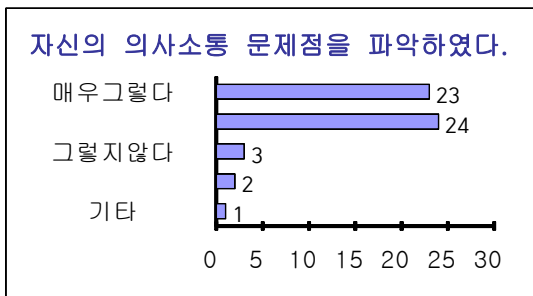
4. 결과 및 반응

3가지 커리큘럼이 진행된 후 학생들에게 의사표현 능력의 향상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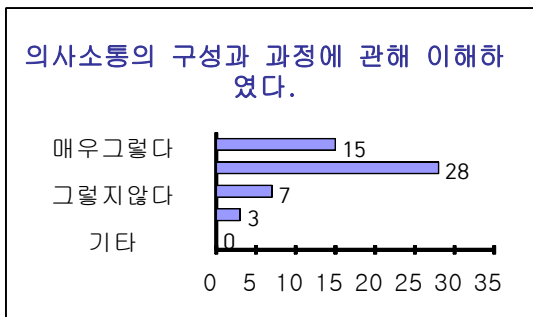
과 다음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표현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였고,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직접적·간접적 의사표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표현방식과 내용 구성력이 향상되었음을 느꼈고 이는 향후 부서관 전형 및 직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하였다.

- ① 자신의 의사표현 문제점을 파악하였는가?
- ② 의사소통의 내용 구성과 과정에 관해 이해하였는가?
- ③ 자신의 의사표현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끼는가?
- ④ 의사표현력의 향상이 향후 부서관 직무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 ⑤ 자신의 의사표현이 향상되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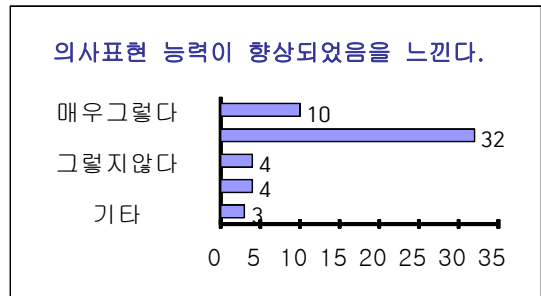
<그래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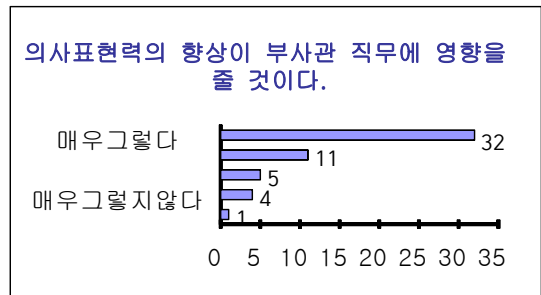
<그래프 6>



<그래프 7>



<그래프 8>



각 수업모형 별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면접

학생 스스로 면접관이 되어 면접자를 직접 관찰하는 방식을 통해 미리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여 비교함으로써 실제 면접 시 면접관의 의도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의 경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즉각적 의사표현의 방법이었는데 다양한 상황에 따른 즉각적 응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또한 언어적 의사소통과 준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등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이해하여 스스로 화법의 테크닉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게 하였다.

B. 프레젠테이션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된 수업모형이다. 발표 시간의 정확한 엄수는 물론 질의 응답시의 작은 말실수도 지적하고 향후 피드백을 하였다. 학생들은 말하

기의 내용 구성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다른 팀의 경우를 비교하여 향후 어떤 주제에 대해 의사표현을 할 때 어떠한 순서로 말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또한 다른 팀의 발표 시 지적하고 그 내용들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화법의 예의와 절차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시각 자료의 제작에서 학생들은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역량을 보여준 연구자를 놀라게 하였다.

C. 토론

토론에서는 학생들의 참여 욕구가 가장 강하게 드러났다. 이는 상대평가의 엄격한 적용을 약속한 것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평소 남들과 논리적으로 논쟁을 해보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처음 100분의 시간에 대해 학생들은 두려움을 나타냈지만 실제 토론에 임했을 때 오히려 시간이 짧음을 느낄 정도로 대단한 열의를 보였다. 청중의 질의도 활발히 이루어져 생동감 넘치는 수업이 되었다. 토론은 말하기 능력의 단계에서 가장 정점에 위치해 있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논파시키는 경험을 통해 화법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한 점이 이 수업모형의 가장 큰 효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주지한 바와 같이 부사관은 군 조직에서 중간간부로 전문적 역량과 함께 다수의 사병의 고충을 수용하고 이를 장교에게 적절히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사관의 의사표현 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잘못된 의사표현은 부사관 자신의 직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중간 간부로서 하위 사병의 관리에 있어 부실한 결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부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부사관 전형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살피고, 특히 스스로 의사표현 능력을 진단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수업모형을 제안하고 그 실제 적용을 통해 의사표현 능력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였다.

국가안보에 적합한 부사관의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제언이 필요한 시점에 이 연구가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경화, “학습공동체 참여 대학생의 집단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20-12, 2013. p331-332.
- [2] 김윤영·정현미, “자기주도학습 촉진을 위한 교수자 스캐폴딩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과학연구 43-1, 2012. p2-3.
- [3] 김친환·진중순, “군 조직 내 의사소통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7-2, 2010. p 207-208.
- [4] 육군본부, “야전교범 6-0-1 지휘통솔”, 육군교육사령부, 2004.
- [5] 전재강 외, 신세대를 위한 발표와 토론, 박이정, 2011. p95-96.

[著者紹介]

송 준 화 (jun-hwa Song)



2000년 2월 학사
2004년 9월 석사

email : gahoosong@hanmail.net.

천 명 희 (myeong hy cheoni)



1996년 2월 학사
1998년 8월 석사

email : chheese@hanmail.net.